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
6월24일까지 광주박물관



▶국립광주박물관이 24일부터 열리는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에 맞춰 전시관 입구에 설치한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의 반차도(행렬 그림)를 박물관 직원들이 살펴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정순왕후가 역사속에서 걸어 나온 듯 생생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을 하루 앞둔 23일 국립광주박물관 2층 전시관 입구에 들어서니 한 면을 가득 채운 영상물이 눈길을 잡아끌었다. ‘정순왕후 가례도감의궤’를 3차원 입체 영상으로 만든 것으로, 66세 영조가 15살의 정순 왕후를 새로운 왕비로 맞이하는 의식이 화면에 고스란히 재현됐다. 1.5km 행렬에 등장하는 인물만 1299명. 행렬이 탄 말도 397마리나 된다. 백성들이 물러나와 환영하는 모습까지 더해지면서 한층 실감났다.

다른 한 편에는 대어(大輿·국상 때 쓰던 큰 상여)를 메고 걷는 상여꾼들에 소복을 입은 만장(挽章) 행렬과 죽산마(竹散馬·왕과 왕후의 장례에 사용하던 말 모양 제구), 곡을 하는 궁인(宮人) 등이 세심하게 그려진 반차도(행렬 그림)가 길게 병풍처럼 펼쳐졌다. 24대 헌종의 비 효현왕후의 장례 절차를 기록한 ‘효현왕후국장도감의궤’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행사를 주관한 관원 명단이나 행사에 사용된 물품 제작 방법·재료 등이 워낙 꼼꼼하게 묘사돼 그대로 따라하면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을 정도라는 게 박물관 측 설명이다.

프랑스 국립도서관 수장고에 있다가 145년 만에 돌아온 외규장각 의궤가 드디어 광주·전남 지역민들에게 공개된다.

국립광주박물관에서 6월 24일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는 헌종국장도감의궤(憲宗國葬都監儀軌)·선위왕후헌전도감의궤(宣懿王后魂殿都監儀軌) 등 외규장각 의궤 51점과 조선왕실유물 등 109점의 유물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아람용으로 한 권박

왕실 중요한 행사과정 남긴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 장렬왕후빈전도감·순강원상시봉원도감 등 최초 공개 반환 과정도 소개... 내용 살펴볼 수 있는 배려 아쉬움

에 남아있지 않은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 순강원상시봉원도감의궤, 분상용임에도 유일본인 장렬왕후빈전도감의궤 등이 최초로 선을 보이게 된다.

100년 전만 해도 지방에서는 꿈도 꾸지 못할, 왕실의 삶과 문화를 세밀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인 셈이다.

의궤는 ‘의식(儀式)의 궤범(軌範)’으로 ‘의식을 치르는 데 규범이 되는 책’이라는 뜻으로, 조선시대 국가나 왕실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그 과정과 주요 의례 절차, 내용 등을 기록과 그림으로 남긴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꽃’이다.

의궤는 왕이 보도록 제작한 아람용(御覽用)과 여러 곳에 나누어 보관하기 위한 분상용(分上用·보관용으로 7~9부 제작됨)으로 구분되는데, 외규장각에 있던 의궤는 대부분 아람용으로, 내용뿐 아니라 형식면에서도 최고의 수준을 보여준다는 평가다.

이번 특별전은 3분야로 나눠 외규장각 의궤의 가치를 소개하고 의궤 내용을 구분해 보여주면서 반환 과정 등을 소개하고 있다.

‘조선의 기록문화와 외규장각 의궤’에서는 의궤의 변화와 가치를 비롯해 종이의 표지의

재질, 장정 방법, 서체와 그림 수준 등에서 나타나는 아람용·분상용 의궤의 차이를 살펴보고 ‘왕실 주요행사의 세밀한 기록-의궤’편에서는 왕실의 주요행사를 살펴볼 수 있도록 했다.

또 병인양요 당시 프랑스가 약탈해간 뒤 중국 문서로 분류됐다가 재발굴한 박병선 박사에게 의궤 존재가 알려진 뒤 145년만에 반환되는 과정도 소개하고 있다.

아름다워 의궤를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한 전통 종이의 우수성과 천연 물감을 사용한 그림 등도 관람객이 쉽게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일각에서는 전시된 의궤를 넘겨볼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의궤 속 내용을 발췌, 설명을 추가하거나 크게 확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람객들의 이해를 돕는 방안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조현중 국립광주박물관장은 “조선시대 기록문화의 최고 결정체인 외규장각 의궤를 통해 우리 전통문화의 우수성과 자긍심을 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입장료는 무료며, 관람 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토요일 9시까지)다. 월요일은 휴관. 문의 062-570-7025.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문화·학술행사 다양

포럼·인형극·발레공연 등

국립광주박물관은 ‘외규장각 의궤’ 특별전에 맞춰 관람객들을 위한 다양한 문화·학술 행사를 연다.

첫날인 24일에는 박상국 한국문화유산연구원장과 유새를 국립중앙박물관 학예연구사를 강사로 초청, ‘기록문화재 환수와 외규장각 의궤’를 주제로 한 학술 포럼을 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한다. 외규장각 의궤에 대한 학술적 가치를 조명하는 자리다.

25일에는 서명주 운차문화원장이 강사로 나서 ‘우리 차 우리 문화’를 주제로 한 특강이 열리고 26일에는 광주시립무용단의 ‘지젤 느와르’, ‘늑대의 꿈’, ‘네버엔딩 스토리’ 등의 발레 공연도 펼쳐진다.

또 27일에는 최선주 국립광주박물관 학예연구실장이 설명하는 ‘큐레이터와 함께하는 특별전’이 열리고 막대 인형극 ‘세종대왕’(28일), ‘기록으로 보는 의궤 시네마’(29일) 등도 진행된다.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우리주변 여유로운 풍경 담아

한부철 개인전, 30일까지 전남대 치과병원 갤러리

항상 곁에 있으면서도 가치를 몰랐던 주변 풍경에 놀랄 때가 적지 않다. 탈출구 없이 꼭 막힌 화색빛 빌딩 속에서 숨가쁘게 살아가는 도시인들이라면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이기도 하다.

서양화가 한부철씨의 개인전은 도시인들에게 일상의 여유로움을 담은 메시지를 전한다.

30일까지 전남대 치과병원 1층 갤러리 아트 스페이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바라보다’라는 주제로, 도심 속 보도블록 사이에서 꽃을 피운 민들레를 비롯해 가로수, 자동차 등 길을 걷다 우연히 마주친 풍경을 사실적으로 표현한 작품을 선보인다.

늘 곁에 있으면서도 무시코 지나쳤던 사물들을 깊이 있게 들여다본 작품은 번잡한 일상을 쉼 없이 달려온 관객들에게 마음 속 빗장을 잠시 열



‘바라보다-봄향’

어두기를 권한다. 작가의 사물을 바라보는 깊이 있는 작품 세계도 엿볼 수 있다. 문의 010-6678-6697.

/김지을기자 dok2000@kwangju.co.kr

재즈 오케스트라의 봄나들이

호남신학대 ‘재즈 인 스프링’ 26일 빛고을시민문화관

지역에서 재즈 오케스트라 공연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호남신학대학교 음악학과 실용음악 전공생들과 교수들이 ‘재즈 인 스프링’이라는 제목으로 여는 공연에서는 30여명의 호신 재즈 오케스트라(지휘 박수용 교수) 무대를 감상할 수 있다. 26일 오후 7시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

이날 공연에서 오케스트라는 루이 암스트롱의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은

‘What a wonderful world’, 냇킴콜이 불렀던 ‘L.O.V.E.’를 선사하며 재학생들은 다양한 재즈 밴드를 구성, 에릭 클랩턴의 ‘Layla’, 엘로우 재킷의 ‘Revelation’ 등을 들려준다.

교수들의 무대도 마련돼 있다. 임민수·김성광·강운숙·김학인씨로 구성된 ‘임민수 콰르텟’은 팻 맨시의 ‘Better Days Ahead’를 선사한다.

문의 062-650-1560.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들려줍니다

27일 네번째 연주회, 호남신학대 예음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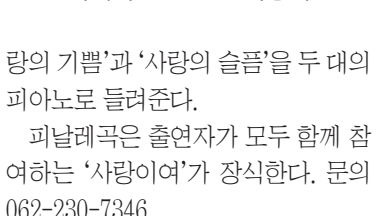
사랑을 노래하는 사람들 네번째 정기연주회가 오는 27일 오후 7시30분 호남신학대학교 음악관 3층 예음홀에서 열린다.

테너 박재욱(광주교육대 교수)씨는 현제명의 ‘오라’, 김정길의 ‘비가’를 들려주며 메조소프라노 강양은(호남신학대 교수)씨와 소프라노 구성희(조선대 겸임교수)씨는 각각 ‘남촌’과 토스티의 ‘기도’를 선사한다.

그밖에 바리톤 이은철(전남과대학 교수)씨는 변훈의 ‘취’를 부르며 피아니스트 김명(광주대 교수), 서영화(조선대 교수)씨는 크라이슬러의 ‘사



박재욱



서영화

랑의 기쁨’과 ‘사랑의 슬픔’을 두 대의 피아노로 들려준다.

피날레곡은 출연자가 모두 함께 참여하는 ‘사랑이여’가 장식한다. 문의 062-230-7346.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0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

고맙습니다. 금수장 창립 31년

www.geumsoojang.com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5,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0,000원 / B코스 33,000원
C코스 25,000원

☎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525-2111 게임동 홈플러스 건너편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 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와인 문화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식

보약, 흥삼은

북고당 한약방

가족의 건강~ 환한 웃음~ 지켜 드립니다.

6년근 홍삼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성인병 노화방지는
· 적절한 운동
· 마음에 평안
· 음식조절입니다

건강한 생활! 장수의 비결!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179-59 T. 062-369-9227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